

後百濟地域 佛教彫刻 研究

崔 聖 銀*

차 례

- I. 머리말
- II. 後百濟 甄萱政權과 佛教
- III. 後百濟地域 佛教彫刻의 現狀과 樣式考察
 - 1. 全州·完州 일대의 불교조각
 - 2. 南原·智異山 일대의 불교조각
 - 3. 光州·長興 일대의 불교조각
- IV. 後百濟地域 佛像樣式의 特徵과 彫刻史的 意義
- V. 맺는말

I. 머리말

지금까지 한국조각사에서 “나말려초”시대 불교조각에 대한 이해는 막연하고 모호한 상태이다. 나말려초 조각양식의 성격도 분명히 규명된 바 없었고 대체로 통일신라말기의 특성을 보이면서 고려초기 양식에 근접하는 작품들을 편의상 나말려초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왔다. 정치, 사회적 전환기였던 나말려초시대의 조각에 대해 이처럼 관심을 갖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시기의 미술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미술에 대한 문헌기록이나 현존

*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 조교수

이 논문은 199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논문을 위한 자료 조사에 도움을 주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전북대박물관, 전남대박물관, 순천대박물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하는 기년명 자료가 드물고 오직 몇몇 승려들의 부도와 귀부비 정도에 대해서만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자료의 부족으로 이 시기의 조각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후삼국 가운데 존립기간이 짧고 흥망의 시기가 명확하며 지배 범위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었던 후백제지역의 조각을 살펴봄으로써 나말려초 조각의 종합적 이해에 一助를 할 수 있고 후삼국시대의 조각과 통일후 고려조각과의 구분도 다소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근래 정치, 사회면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후백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비해 문화나 미술면에 있어서는 학계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후백제조각의 대체적인 윤곽을 잡아보고, 나말려초 조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후백제의 지배지역이었던 전북지방과 전남지방에서 전해오는 조각 가운데 나말려초기의 양식적 특징이 보이는 작품을 선별하여 후백제조각이라는 범주에 넣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도는 후백제지역의 불교조각을 양식만을 기초로 하여 살펴보는 추론적 고찰이므로 문헌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紀年銘 자료의 출현과 함께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논문이 나말려초 조각에 대한 이해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II. 後百濟 甄萱政權과 佛教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견훤의 생애와 후백제의 흥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후백제가 후삼국 가운데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후백제의 문화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¹⁾

알려진 바와 같이 견훤(867-936)은 尙州 加恩縣(聞慶 加恩邑) 출신으로 부친 阿慈介는 처음에는 농업으로 自活하다가 沙弗城(尙州)에서 장군으로 자칭하여 호족으로 웅거하게 되었다.²⁾ 견훤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걸출하고 지략이 뛰어났는데 장성한 뒤 從軍하여 서울을

1) 후백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 研究』(一潮閣, 1993)가 있다.

2) 『三國史記』 卷 50 列傳 10 「甄萱」; 『三國遺事』 卷 2 「後百濟 甄萱」條. 한편 견훤의 출신지를 光州로 보는 意見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金庠基, 「甄萱의 家鄉에 관하여」, 『李秉岐頌壽紀念論文集』(1966); 朴敬子, 「甄萱의 勢力과 對王建關係」, 『淑大史論』 11·12합집(1982) 참조.

거처 서남해 防戍軍의 裨將이 되었다. 진성여왕 6년에 중앙정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유리되고 도적이 일어나는 등 혼란한 상황을 틈타 견훤이 군사를 모아 서울 서남쪽 고을을 치니 가는 곳마다 호응하여 한달이 좀 지나자 무리가 5천여명이 되었다.³⁾ 景福 元年(892) 武珍州(光州)를 습격하여 스스로 칭왕하였고 光化 3年(900)에는 完山州로 천도하여 백제의 부흥을 내걸고 후백제라는 국호를 정하고 設官分職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⁴⁾ 완산주는 백제멸망 후 백제의 부흥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곳으로 반신라적 경향이 강한 지역이었으므로 이곳에 후백제의 도읍을 정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⁵⁾ 이후 甄萱은 吳越과 後唐 등에 使臣을 파견하고 거란과도 교류하고 日本에까지 使節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외교섭을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890년 入唐하여 빈공과에 급제한 뒤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후백제에서 견훤을 위하여 일했던 崔承祐와 같은 6두품 유학생들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⁶⁾ 지배지역도 점차 확대되어 건국초부터 고려가 건국되는 918년경까지 후백제는 서남해일대를 공략하다가 918년부터 930년경까지는 신라와 인접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일대의 확보에 주력하여 이 부근의 합천, 초계, 의성, 약목, 벽진, 거창 등이 거의 견훤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고 아울러 충청도일대의 내륙지방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홍성, 공주, 연기를 포함한 충남의 중서부와 淸州, 報恩, 懷仁, 槐山, 忠州 등 충청북부 등지가 견훤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⁷⁾ 930년부터는 서남해의 지배권이 다시 견훤에게로 돌아가

-
- 3) 신라가 분열되어 후삼국이 성립되었던 배경으로 崔根泳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먼저 무력에 의한 왕위쟁탈전에 따른 중앙 통치질서의 붕괴, 둘째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셋째 중앙 귀족과 세력가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富의 축적과 그들의 사치와 향락, 넷째 향락적 귀족문화에 대한 반발하는 6두품 계층의 반사회적 활동 등이다. 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 支配勢力研究』(新書苑, 1993), 201~203쪽.
 - 4) 『三國史記』 卷 50 列傳 10 「甄萱」; 『三國遺事』 卷 2 「後百濟 甄萱」; 申虎澈, 앞 책, 7쪽, 13쪽, 35~48쪽 참조. 후백제의 都邑을 益山일대로 보는 說도 있다. 宋祥圭, "甄萱의 完山立都說에 대한 考察", 『全羅文化研究』 1(1979); 申虎澈, 앞 책, 215쪽.
 - 5) 完山州(全州) 관내에 있는 金馬郡에 백제 멸망 후에 唐이 馬韓都督府를 설치하였던 까닭에 여기에 저항하는 백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고구려 멸망 후 신라로 도망해 온 安勝을 맞아 報德國을 세우게 함으로써 이 지역 백제유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반신라적 의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崔根泳, 앞 책, 220~221쪽 참조.
 - 6) 최승우는 893년 唐의 빈공과에 급제한 뒤 태위 韋昭度, 叻州幕府에 부임한 陣策, 進士 曹松 등 당의 文人들과 교류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다가 귀국하여 견훤을 위해 왕건에게 보내는 檄書를 쓰기도 하였다. 『三國史記』 卷 46 「列傳」 薛聰傳.
 - 7) 신호철교수는 충청도 북부일대가 일찍부터 궁예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으며 청주, 괴산, 충주를 잇는 충북일대와 경기도 광주, 唐城(남양)지역이 궁예정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었던 남방한계선이었다고 보았다. 申虎澈, 앞 책, 71쪽.

는 한편 중북부 일대의 지방세력이 약화되어 청주, 보은, 홍성 등 공주이북의 30여 城이 급격히 고려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고⁸⁾ 930년의 古昌 전투에서 후백제가 크게 패하면서 영안(영천), 하곡(하양), 직명(안동), 송생(청송) 등 30여군현이 고려로 來降하였으며 명주에서 안동에 이르는 110여개 성이 고려에 항복하게 되었다.

한편 왕실내부에서는 견훤이 네째 아들인 金剛에게 왕위를 넘기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神劍, 良劍, 龍劍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고 금강을 죽인 뒤에 신검이 왕위에 올랐다. 935년 4월에 금산사를 탈출한 견훤은 왕건에게 귀부하였고 이듬해 9월 황산(一利川) 전투에서 神劍軍이 패배함으로써 892년부터 936년까지 45년간 존속했던 후백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⁹⁾

위에서 살펴 본 후백제의 흥망에 대한 간략한 서술 가운데에서 몇가지 주목해야만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견훤이 후백제를 일으키기 以前の 출생, 성장, 활동 지역은 백제의 舊土가 아닌 신라지역이었고 서남해 防戍軍의 裨將이 되기 전에는 首都 慶州로 從軍하였던 점에서 근본적으로 견훤은 신라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후백제의 점령지역을 보면, 거창, 합천에서 벽진, 약목, 의성에 이르는 오늘날의 경남, 경북지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후백제는 신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충청남북도의 청주, 괴산, 충주, 공주, 홍성 일대는 원래 궁예의 영향권 아래 있던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후백제에 來降하다가도 형세가 바뀌자 재빨리 고려에 귀부하는 등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대체로 청주, 괴산, 충주를 잇는 충북지방과 경기도 광주, 남양일대를 궁예세력의 남방한계선이라면 견훤이 세력을 미칠 수 있던 북방한계 지역은 보은(삼년성), 회인(昧谷), 공주(熊州), 홍성(運州)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圖 1. 지도).¹⁰⁾ 따라서 순수하게 후백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왕건에게 빼앗긴 나주 일대를 제외한 전라남북도 지방과 공주 이남의 충청도 지역이라고 하겠다.¹¹⁾

8) 申虎澈, 앞 책, 69, 71, 73, 77, 121, 123쪽 참조.

9) 申虎澈, 앞 책, 69, 77, 166쪽; 『三國史記』 卷 50 列傳 10 「甄萱」; 『三國遺事』 卷 2 「後百濟 甄萱」條. 신호철교수는 견훤정권의 성립시기를 892년이 아닌 889년으로 보고 견훤이 889년 이전에 이미 自立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후백제는 48년간 존속했던 것이 된다. 申虎澈, 앞 책, 35~48쪽 참조.

10) 申虎澈, 앞 책, 72쪽 註 10 참조.

11) 公州는 원래 궁예의 세력권 아래 있다가 王建이 즉위하자 후백제에 귀부하였던 곳으로 고려의 통치에 저항하고 갈등하는 요인이 이 지역에 상당히 있었다고 한다. 왕건이 공주, 홍성, 청주의 지방민들로부터 받은 저항과 이 지역민들의 反王建의 행동에 대해서는 崔根泳, 앞 책, 247쪽 「표 23」참조.

셋째로 中國 五代와 吳越 등을 대상으로 한 후백제의 활발한 대외관계는 국제적으로 후백제의 위상을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과 해상무역을 통한 교역이라는 경제적인 목적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미술문화의 수용도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²⁾

불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후백제의 중앙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일대는 삼국시대 이래 불교가 융성하였던 지역으로 彌勒寺, 金山寺, 華嚴寺와 같은 法相, 華嚴宗의 대찰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충청지역에는 法住寺, 普願寺, 聖住寺 등의 대찰이 있었으며, 이밖에도 南原 實相山, 長興 迦智山, 谷城 桐裏山 등 九山禪門 가운데 3개 門派가 개창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후백제의 건훤은 다른 후삼국시대 군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히 불교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건훤은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전주의 四方에 동고진, 서고진, 남고진, 북고진의 사고진을 설치하여 수도를 방비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고진 안에 사찰을 하나씩 창건하여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북고사의 四固寺가 되었다고 한다.¹³⁾ 그런데 이 四固寺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즉 東固寺는 876년 道詵이 초창하였다고 전하고, 北固寺도 景文王代(r.861-875)에 도선에 의해 完州七峰의 虎岩山에 창건되었다고 전

12) 기록에 전하는 후백제의 對中관계를 살펴보면, 900년에 건훤이 吳越에 사신을 파견하고(『三國史記』 50 『甄萱傳』), 909년 다시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며(『高麗史』 太祖世家 『甄萱傳』), 918년에는 건훤이 오월에 말을 진상하기도 한다(『三國史記』 60). 925년에 후백제는 後唐에 朝貢하고(『三國史記』 50 『甄萱傳』), 927년에는 오월왕이 고려와 후백제의 화해를 권유하였다(『高麗史』 太祖世家 10年). 마지막으로 936년에 후백제가 後唐에 朝貢方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冊府元龜』 972). 그런데 이 기록들은 공식적인 사절의 왕래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던 왕래는 훨씬 빈번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五대의 정치적 혼란으로 공식적인 조공사절이 아니면 入京하지 않고 해안의 기항지에서 무역을 하고 돌아오거나 지방관들이 중앙에 외국배의 입항사실을 통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李基白, “高麗初期 五代와의 關係”, 『韓國文化研究院論叢』 1(이화여자대학교, 1959), 73~87쪽 또는 『高麗光宗研究』(一潮閣, 1981); 日開野三郎,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 『朝鮮學報』 16(1960. 7), 1~60쪽; 崔聖銀, “羅末麗初 佛教彫刻의 對中關係에 대한 考察”, 『佛教美術』 11(동국대학교박물관, 1992), 108쪽 및 109쪽 <表 2> 참조.

13) 『전주시사』(전주시, 1986), 560쪽; 오병무, “전북 전주와 완주지역 廢寺址”, 『廢寺址調査報告』(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2), 166쪽. 현재 東固寺는 全州市 完山區 校洞 1가 山 3번지에 위치하는데 원래는 현 위치보다 위쪽에 있었다고 한다. 西固寺는 全州 德津區 만성동에 있으며, 北固寺는 지금의 鎭北寺로 全州市 德津區 鎭北洞 977번지 소재이고, 南固寺는 全州市 完山區 東樓鶴洞 724번지에 있다. 『寺刹誌』(전라북도 문화예술과, 1990), 79~85 쪽 참조.

하며, 西固寺와 南固寺는 普德大師¹⁴⁾의 제자인 明德화상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한다.¹⁵⁾ 四固寺의 창건과 관련되어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明德화상이나 道詵, 甄萱과 연관되어 있는데 後代의 기록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가운데 도선은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지 7년 뒤인 898년에 光陽의 玉龍寺에서 입적하였다고 전하므로 후백제의 지배지역이었던 전라도 지역에서 그의 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⁶⁾

道詵(827~898)이 실존했던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異見이 있고 다른 인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¹⁷⁾ 현존하는 崔惟淸이 選한 도선의 碑文에 의하면 그는 全南 靈岩 출신이고 15세 때 화엄사에서 出家하였으며 桐裏山派의 開山祖인 惠哲의 印可를 받아 光陽의 玉龍寺에서 863년 독자적인 禪門을 열어 35년간 主席하였다.¹⁸⁾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것은 892년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이전부터 전라도의 서남해안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지배지역에서 독자적인 禪門을 열어 住持하였고 風水地理에 달통한 道詵을 몰랐을리 없었을 것이다. 더우기 백제의 舊土에서 백제의 부흥을 기치로 내세워 새롭게 稱王建元하였던 견훤에게 풍수지리에 밝았던 선승 道詵은 꼭 필요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선과 견훤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인물로서 道詵의 嗣法弟子였던 慶甫(868~947)가 있다. 경보는 도선과 같은 영암출생으로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892년에 入唐하였다가 921년 全州 臨陂郡을 통해 귀국하였다.¹⁹⁾ 그는 견훤의 請으로 南福禪院과 玉龍寺에서 살면

14) 보덕대사는 고구려 승려로 寶藏王(r.642-668)이 중국으로부터 道教를 구하여 오므로 나라가 장차 망할 줄 알고 백제의 완산주 孤大山으로 그의 方丈을 옮겼다. 오늘날의 高達山(현재 전주 동남쪽 高德山) 景福寺의 飛來方丈이 바로 그것이다. 문헌에는 명덕을 비롯한 11제자가 있었는데 각각 절을 짓고 중생을 교화하였다고 한다. 『三國遺事』 卷 3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耘虛·龍夏, 『佛敎辭典』(동국역경원, 1961 초판, 1989 19판), 294쪽; 『全州·完州地域 文化財調査報告書』(全州: 全北大學校博物館, 1979), 73~81쪽 참조.

15) 北固寺는 136년전 觀察使 李書九가 風水說에 근거하여 虛한 全州府城의 북쪽을 補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북고사의 이름을 鎮北寺로 改名하였다고 한다. 李哲秀, 『全州野史』(全州出版社, 1967), 64쪽.

16) 崔惟淸이 選述한 道詵의 비문에 따르면 도선이 898년에 입적하자 효공왕이 도선의 諡號를 了空禪師, 塔號를 澄聖慧燧이라고 내려주고 瑞書學士 朴仁範에게 碑文選述을 명하였으나 이 비문은 돌에 새겨지지 못했다고 한다. 최병현교수는 그 이유를 도선이 입적할 당시에는 후백제 세력이 光陽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가 박인범의 碑文選述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 지역이 후백제의 세력권 아래 들어갔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崔柄憲, “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 - 禪宗과 風水地理說의 關係를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 11(1975), 107쪽.

17) 도선이 과연 실존했던 인물이었는지 의심되는 이유로서 그에 관한 기록이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보이지 않는 점이 지적되는데 최병현교수는 많은 선승들의 이름이 이 두 책에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선의 實在性을 의심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崔柄憲, 앞 글, 104쪽.

18) 道詵은 15세에 출가하여 20세까지 華嚴을 공부하고 20세부터 23세까지는 禪宗을 수업하였으며 23세부터 37세까지는 放浪하였고 37세부터 72세까지 玉龍寺에서 住持하였다. 崔柄憲, 앞 글, 104, 110쪽.

19) 日開野三郎, “羅末三國의 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 『朝鮮學報』 16(1960.7), 30쪽.

서 道誥의 뒤를 이어 옥룡사의 주지가 되었는데 끝까지 후백제에 남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왕건에게 귀부하였던 인물이다.²⁰⁾ 그러므로 여기서 도선과 경보로 이어지는 옥룡사 선문이 견훤에게 끼친 영향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견훤과 경보와 연결된 동리산선문은 唯識과 풍수지리사상을 포용하였고, 전남일대의 구례, 곡성, 광양, 영암 등지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견훤을 단월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도 있다.²¹⁾ 그리고 이 두 승려가 수학했던 화엄사는 先覺國師 迥微(864~917)를 비롯한 나말려초의 여러 선승들이 선종에 입문하기 전에 華嚴敎學을 공부했던 곳이었는데, 후삼국시대의 화엄종에서 견훤을 지지했던 南岳 觀惠가 화엄사의 승려였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어서²²⁾ 화엄사를 비롯한 지리산 일대의 사찰들의 성향과 견훤과의 관계를 示唆해 준다.

한편 앞에서 서술한 경보의 경우처럼 중국에서 유학한 禪僧들이 후백제 세력권 내에 있는 해안을 통해 귀국하는 예가 발견된다. 후백제는 羅州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안을 왕건에게 빼앗겼지만, 이외의 서해안의 일부와 남해안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吳越, 閩, 南唐 등 중국 오대의 남중국 여러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었으므로 무역선이나 조공사절을 따라 후백제 해안으로 귀국하였던 遊學僧의 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²³⁾ 당시 나말려초의 禪僧들 가운데 많은 수가 강남지방의 南宗禪 祖師들로부터 印可를 받고 돌아 왔는데 그 예로 전라도 지역에서 개창된 迦智山, 桐裏山, 實相山派의 개산조인 道義, 惠哲, 洪陟禪師가 모두 江西省 洪州에서 禪門을 열고 있던 西堂智藏의 門下라는 점이 주목되며²⁴⁾ 이들 선승들과 전라도 지역의 연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선종구산과 가운데 지리산의 實相山派는 지역적으로 전주와 가장 가까이 있던 禪門이었는데 현존하는 금석문 자료 가운데 實相寺 曹溪庵址에 있는 片雲和尚 부도에 “正開十年庚午歲建”을 포함한 총 24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20) 金廷彦選, “玉龍寺洞眞大師寶雲塔碑文”(958年), 『朝鮮金石總覽』 上, 189~190쪽; 耘虛·龍夏, 앞 책, 36쪽; 崔完秀, 『명찰순례』(대원사, 1994), 2권 64쪽; 3권, 384쪽 참조.

21) 金杜珍, “羅木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東方學志』 57(1988), 1~51쪽 참조.

22) 崔完秀, 앞 책, 2권 64쪽 참조. 『三國遺事』 「均如傳」에 “신라말 가야산 해인사에 華嚴學의 大家가 있었는데 觀惠와 希朗이었다. 그들은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져 觀惠는 남쪽에서 견훤의 福田이 되었고 希朗은 북에서 고려 태조의 복전이 되어 각기 화엄의 일가를 이루었으므로 관혜의 法門을 南岳派라 하고 희랑의 법계를 北岳派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文明大, “海印寺木造希朗祖師眞影(肖像彫刻)像의 考察,” 『考古美術』 138·139(1978. 9), 20~27쪽 참조.

23) 日開野三郎, 앞 글, 30쪽, 表 4 참조.

24) 崔柄憲, 앞 글, 112쪽 참조.

正開는 견훤의 연호로 추정되고 있어²⁵⁾ 實相寺 승려들과 견훤과의 긴밀한 관계를 뒷받침한다.

후백제 지역에는 彌勒寺를 비롯하여 金山寺, 法住寺 등 법상종 계통의 대찰들이 있었으므로 선종 승려들과의 관계 못지 않게 주목되는 것이 미륵신앙을 기초로 하는 法相宗 사찰과의 관계이다. 來世佛인 미륵의 신앙은 理想世界를 지향하는 현실개혁적인 성격을 지녀 후삼국의 지배자들이 법상종에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특히 신라시대에 금산사를 중심으로 법상종풍을 크게 일으켰던 眞表의 출신지가 完山州였음을 미루어 견훤은 법상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⁶⁾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금산사가 견훤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誤記되었는데²⁷⁾ 이것은 견훤 당시 금산사가 대폭 증창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되었던 곳도 바로 금산사였다는 사실은 후백제 왕실과 금산사와의 밀접한 관련을 암시한다.²⁸⁾ 한편 미륵사가 있던 益山은 金山寺와 마찬가지로 전주에서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후백제가 도읍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후백제 왕실과의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⁹⁾

이밖에도 견훤의 아들 金剛과 月光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³⁰⁾ 金剛은 견훤이 특히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 주려고 하다가兄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아들이며 월광에 대해서는 「伽耶山海印寺古跡」에 백제의 왕자 月光이 美崇山에 근거하여 王建과 對戰하였는데 식량과 군대가 강하여 그 형세가 마치 神과 같았다는 기록이 있다.³¹⁾ 여기서 金剛(vajra)은 견고하여 파괴될 수 없는 最勝의 境地를 의미하며 金剛薩埵(Vajrasttva)나 金剛

25) 홍척의 제자로 星州 安峰寺의 개창조인 편운화상의 부도에는 “創祖洪陟弟子安峰創祖片雲和尚浮屠 正開十年庚午歲建”의 24자가 쓰여 있는데 正開 10年 庚午는 910년으로 생각된다. 金包光,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教』 49(1928. 7); 申虎澈, 앞 책, 52~53쪽.

26) 金杜珍, “高麗初의 法相宗과 그 思想”, 『韓治勳博士 停年기념 史學論叢』(1981), 222, 224, 228쪽 참조.

27) 『東國輿地勝覽』 卷 34 「金溝縣 佛宇條」.

28) 金杜珍교수는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금산사가 후백제의 政變에 깊숙이 關與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金杜珍, 앞 글, 222쪽.

29) 견훤의 益山도읍설의 論據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익산의 지리적 조건이 자연적 지세로 보나 풍수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도읍지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로 익산이 馬韓세력의 중심지였으므로 백제의 부흥을 부르짖던 甄萱이 益山에 도읍했을 가능성이 있고, 셋째로 甄萱傳의 “立都於完山”에서 완산을 전주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완산주의 속령이었던 익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宋祥圭, 앞 글; 申虎澈, 앞 책, 215쪽 참조.

30) 申虎澈교수는 불교적 성격이 강한 金剛의 이름은 後百濟 末期 견훤의 불교사상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신호철, 앞 책, 152~153쪽.

31) 『朝鮮寺刹史料』 上, 493~496쪽.

智(Vajraprana) 등 여러 불교용어에서 사용되고 華嚴的, 密敎的인 성격이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 月光(Candraprabha)은 부처님이 過去世에 太子였을 때의 이름이고 부처님이 支那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마가다 王舍城의 德護長者의 아들 이름이기도 하며 藥師如來의 협시보살 이름이다.³²⁾ 이와 같은 견훤 아들들의 불교적 이름을 통해 견훤의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견훤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적지 않은 佛事를 일으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날 견훤에 대한 사료가 영세하여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삼국이 통일된 이래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이 지역이 견훤의 지배 하에서 다시금 활기를 찾았을 것이며, 특히 당시 9세기말에는 道詵을 비롯한 일부 禪僧들의 영향으로 풍수지리사상이 유행하여 풍수지리적으로 虛한 곳을 補하기 위한 裨補寺刹과 堂塔이 많이 세워지고 있었고 견훤은 이와 같은 佛事도 적극 지원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당시 후백제 왕실의 화려함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昧谷 城主 龔直이 후백제에 조공을 한 뒤 아들 직달에게 “이 나라를 보니 사치함에 道가 없어 내 비록 가까우나 다시 오고 싶지 않다”³³⁾고 말했던 것으로 미루어 豪族의 눈에 비친 후백제의 생활이 무척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견훤이 지원했던 佛寺의 규모도 크고 화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Ⅲ. 後百濟地域 佛教彫刻의 現狀과 樣式考察

全州를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의 지배지역에서 견훤과 관련된 유적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東國輿地勝覽』에는 全州府의 동쪽 5리 되는 곳에 견훤이 쌓은 古土城의 터가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民家가 들어차서 흔적이 없으며 南固山城의 石城이 견훤성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³⁴⁾ 확실한 근거는 못되지만 1844년에 세워진 「南固鎮碑」에 남고산성이 견훤

32) 『望月佛敎大辭典』(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74 改定 1刷), 758~759쪽; 耘虛·龍夏, 앞 책, 96~101, 660쪽.

33) 『高麗史』列傳「龔直條」.

34)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Ⅳ 「전주부 고적」, 412쪽; 『全州·完州地域 文化財調査報告書』全北地方 文化財調査報告書 第1冊(全北大學校博物館, 1979), 12쪽.

성의 古址라고 밝히고 있고,³⁵⁾ 견훤이 전주를 비보하기 위해 세웠다고 전하는 四固寺刹 가운데 南固寺가 바로 남고산성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견훤과의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견훤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후백제와 관련지워 생각해 볼 수 있는 불교유적과 유물은 적지 않게 전하고 있다. 수도였던 전주일대에는 후삼국시대와 연관될 수 있는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完州와 井邑, 南原일대에서 여러 점 발견되고 있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과 충청 일부지역에도 나말려초기 후백제의 조각으로 추정되는 불상들이 상당수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라도와 충청지방에 전해오는 불교조각을 살펴보면 한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삼국통일 이후부터 新羅下代 이전까지의 작품은 극히 드물고 나말려초기부터 조상활동이 왕성해져 고려시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朗慧禪師에 의한 聖住寺의 중창(847년), 寶林寺 철조비로자나불좌상(859년)이나 實相寺 철조약사여래좌상의 조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羅末에 禪宗山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중앙귀족이나 지방 호족, 지역의 信徒들이 후원하였던 佛寺로 인해 지방에서 조상활동이 활발해진 점에 기인하며, 특히 이 일대가 후백제의 지배지역이 된 892년 이후에는 견훤 정권하에서 여러 佛寺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었던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북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완주군과 남원지역에서 후삼국기의 조각으로 생각되는 불상들이 비교적 여러 점 발견되고 있는 것은 완산주 일대가 후백제의 수도권 지역이었으므로 여러 곳에 비보사찰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고, 南原은 삼국시대 이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고³⁶⁾ 통일신라시대에는 5小京의 하나로 지방문화의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불교가 크게 숭앙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현존 작품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후백제의 지배지역에 현존하는 불교조각 가운데는 양식적으로 나말려초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후백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여러 구 전하고 있다. 이들 조각 중에서 후삼국시대의 나말려초 양식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의 현상과 양식경향을,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지배지역, 남원일대의 지리산 지역, 광주를 중심한 전남지역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5) 『全州·完州地域 文化財調査報告書』, 29쪽.

36) 남원은 특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로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할 때 군사상 전진기지였으며 후백제 견훤 역시 신라의 大耶城을 공격할 때 남원을 군사적 거점으로 삼았다. 崔根泳, 앞 책, 68, 123~125쪽.

1. 全州 · 完州 일대의 불교조각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익산, 김제, 정읍 등의 전북지방은 후백제 중앙지역으로 현재 남아 있는 몇 구의 금동불과 석불들이 나말려초기의 조각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들 가운데 全州에서 출토한 像은 東棲鶴洞 남고산성 아래에 위치한 南固寺 경내에서 1980년에 발견된 금동불입상 뿐이다(圖 2).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南固寺는 건원이 전주를 비보하기 위해 세웠다는 四固寺刹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불상의 조성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하다. 5.6cm의 小像인 이 불상은 頭部와 佛身의 비례가 1 : 4 정도되는 어린이의 신체와 같은 佛身을 지녔는데 광배를 잃었고 부식이 심하여 세부의 조각은 알아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불신에 비해 두부가 큰 편이고 불신은 평판적이며 어깨는 좁고 둥글다. 육계는 크고 존안은 장방형으로 웃는 상호이며 양손은 시무외 · 여원인의 通印을 결하고 大衣는 通肩式으로 입은 것 같다. 대좌는 단순한 형태로 투박하고 세련미가 없다. 이 상에서 보이는 4~5등신 정도의 단구형 비례는 후백제 지역의 몇몇 다른 조각에서도 발견되는 표현 상의 특징이다.

남고사 금동불입상과 함께 주목되는 금동불로서 김제출토의 금동불입상 2구가 있다(圖 3, 4). 두 구의 불상은 전북 김제군 김제읍 옥산리에서 함께 출토되었는데 전주시립박물관 소장이었다가 현재는 국립전주박물관에 이관되어 있다. 두 상 가운데 10.2cm의 여래입상은 남고사상보다는 상태가 나은 편이지만 역시 광배를 잃었고 코 부분이 마멸되었다. 通肩式으로 입은 大衣의 주름은 하체에서 Y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시무외 · 여원인의 通印을 結하고 미소면 사각형의 尊顏, 투박하게 각변의 길이가 일정치 않은 칠각의 대좌 형태면에서 南固寺像과 흡사하다. 함께 출토된 7.2cm 크기의 불입상은 대좌, 광배를 모두 잃었고 육계도 마멸되었으나 장방형의 얼굴모습이나 가슴까지 내려입은 대의 표현이 특징적이다.

이 세 구의 불입상은 비록 상태가 좋지 않지만 익산 왕궁리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불입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성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는 익산 왕궁리석탑의 사리구와 함께 발견된 이 상(圖 5)은 둥근 얼굴에 평판적인 신체, 가슴이 넓게 파여진 大衣 밖으로 가슴이 드러나는 短軀의 佛身 위에 넓게 음각된 大衣주름, 대좌 위에 單瓣으로 단순하게 연잎이 선각된 대좌를 지니고 있는데, 화려한 광배에서 장식성이 돋보이지만 신체의 비례감이나 어딘지 어설피고 왜소해진 조형성은 조성시기의 하강을 시사한다. 왕궁리상은 남고사상이나 김제상들에 비해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존안을 포함한 조각 세부의 표현이 잘 보이는데 尊顏의 모습과 착의 형식, 수인, 그리고 신체의 비례면에서 김제像(圖 4)과 비교된다. 즉, 南固寺像

이나 金堤像의 손상된 佛顏을 보면 얼굴의 형태가 네모져 턱이 짧게 조각되었는데 이 점은 왕궁리 불상의 등글지만 턱부위가 짧게 조형된 불안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발의 머리에 커다란 육계의 표현이라든지 대좌 역시 남고사나 김제상의 대좌가 투박하고 세련미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왕궁리불상의 대좌 유형을 따르고 있고, 비례면에서도 왕궁리상과 남고사상이 4등신 정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 금동불들은 비록 한 구는 좀더 정교한 기법을 보이고 다른 상들은 다소 떨어지는 기법으로 조성되었다는 차이는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불상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소형 금동불과 석불과 연관성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海鼎寺址 石佛頭(圖 6)로 이어진다.³⁷⁾ 근래 井邑 高阜面 龍興里 海鼎寺址 앞 전담에서 발견되어 해정사지에 있던 석불 불신 위에 올려져 있는 이 佛頭는 소발의 머리에 우뚝 솟은 육계, 장방형의 존안이 앞의 금동불들을 연상케 하는 면이 있어 주목된다. 이 상외에도 정읍과 완주일대에서 출토한 석불들은 여러가지 흥미있는 점을 보여준다.

완주군에서 발견되어 전주로 옮겨온 鳳林寺址 석조삼존불상과 大雅里 석불좌상, 東上面 飲水里 山城洞출토 석조약사불좌상 등은 통일신라 9세기 조각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지방화가 진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산면 삼기리 봉림사지에서 1961년에 발견되어 1977년 전 북대학교 박물관 앞뜰로 옮겨진 봉림사지 석조삼존불상(圖 7a~7e)과³⁸⁾ 삼기리와 접한 고산면 대아리에서 1960년에 역시 전북대학교로 가져온 석불좌상(圖 9)은³⁹⁾ 모두 頭部를 잃었으나 비교적 양감이 풍부하고 단아한 조형감을 보여주는 佛身 각부의 균형과 비례감이 좋아서 청룡사석불좌상(圖 10)이나 축서사, 동화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圖 11, 12)들과 같은 통일신라 9세기 조각의 양식을 이어받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37) 해정사지석불입상의 佛頭와 佛身이 원래 한 像의 것인지의 의문이다. 해정사에 대해서는 『古蹟調查資料』에 「해정사」란 와편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일대에 해정사라는 사찰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高阜面 龍興里 海鼎寺址 亥丁洞東方六町山腹에 있음. 塔八尺五寸, 三重, 佛四尺首右腕 切斷됨. 瓦片 寺銘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일찌기 두부가 결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에 대해서는 『文化財誌』(전라북도 문화예술회, 1990), 456~457쪽; 李殷昌, “高阜 龍興里의 佛跡調查”, 『考古美術』 第7卷 第5號, 通卷 70, 100권 합집 下, 194~195쪽 참조

38) 이 삼존불에 대해서는 鄭永鎬, “完州郡 三奇里의 石佛 二軀”, 『考古美術』 제5권 3호, 100권 합집 502~504쪽; 『全州, 完州地域 文化財調查報告書』(전북대학교 박물관, 1979) 35~38쪽; 崔聖銀, “鳳林寺址 石造三尊佛像에 대한 考察 - 後三國時代 彫刻의 一例 -”, 『佛教美術研究』 1(東國大學校 佛教美術文化財研究所, 1994) 45~62쪽 참조.

39) 鄭永鎬, “完州 高山面 小向里의 石佛”, 『考古美術』 제4권 제4호, 100권 합집 上, 378~379쪽; 『全州·完州地域 文化財調查報告書』 41쪽.

먼저 봉림사지삼존불을 살펴보면 본존상(圖 7a)은 대의를 우견편단식으로 입었는데 대의의 깃이 밖으로 접혀져 왼편 어깨에서 세모꼴을 이루고 오른편 가슴 아래에는 승각기를 고정된 띠매듭이 보인다. 이 세모꼴의 대의깃 주름표현은 南原 新溪里 석불좌상이나 뒤에서 살펴볼 新村洞(심경암) 석불좌상(圖 17)에서 보이고 있고 安城 죽장동 奉業寺址출토 석불입상에서도 발견되고 있지만 나말려초기의 다른 지역 조각에서는 흔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 흥미롭다. 대의의 옷주름은 평행층단주름을 이루고 있고 이와 같은 주름형태는 양 협시보살에서도 나타난다. 본존의 오른손은 풍화되었는데 降魔觸地印의 手印을 결하고 있고 왼손은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있다. 광배는 테두리가 조금 깨어졌는데 頭光에는 연화문과 세 구의 化佛이 조각되어 있고 身光의 주위에는 화염문과 보살화문이 새겨져 있으며 광배의 뒷면에는 민머리의 僧形尊像이 새겨져 있다(圖 7e). 본존의 대좌는 팔각연화좌로 상대는 단판연잎이고 하대는 복판연잎이다. 중대에는 중앙에 가릉빈가(Kalavinka)像이 새겨져 있고 그 주위에는 天人像이 새겨져 있으며 초층 지대석에는 각면에 眼象이 두 개씩 새겨져 있다.

협시보살상들은 체구가 아담하며 向右 협시보살상(圖 7d)은 왼손을 올려 목거리의 중앙부를 엄지와 검지로 쥐고 있고 남은 손가락은 곧게 펴고 오른손은 내려서 천의자락을 쥐고 있다. 천의는 두다리 위에서 X자로 교차되고 있고 허리띠는 리본모양으로 묶여져 아래로 가지런히 늘어 뜨려져 있다. 두 발은 연화대좌 위에 올려져 있는데 연화좌의 상대와 하대는 복판단엽의 연잎이 새겨져 있다. 向左 보살상(圖 7c)도 向右 보살상과 같은 형태로 천의가 표현되어 있고 오른손은 가슴 위로 들어 올려 검지와 약지를 곧게 펴고 있으며 왼손은 아래로 내려 역시 옷자락을 잡고 있다. 발과 대좌의 형태도 좌협시상과 동일하며 두 보살상 모두 양손목과 상박부에 똑같은 띠모양의 밋밋한 팔찌를 차고 있다.

봉림사지 삼존상에서 지방색이나 불상양식의 시대적 흐름은 본존상의 光背, 臺座 등의 세부표현과 좌우협시보살상에서 잘 나타난다. 광배에 새겨진 化佛이나 화염문 등은 고부조로 조각되었으나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토속성이 느껴지며 대좌의 중대석이나 지대석의 폭이 좁아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대좌는 889년경에 조성된 경북 영양 연당동 약사불좌상에서 발견되어 地方化된 시대적 특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좌 중대석의 중앙에 새겨진 가릉빈가상은 쌍봉사 철감선사탑(868)에서부터 봉암사 지중대사탑(883), 연곡사 동부도, 보리사 대경대사탑(939) 등에서 발견되어 나말려초기에 전라도나 경기지역과 같은 신라 변방에서 유행한 도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대 양식은 특히 좌우 협시보살입상에서 잘 나타난다.

봉림사지삼존불의 좌우 협시보살입상(圖 7c, d)은 역시 두부가 결실되었는데 하체가 짧고

신체가 평면적인 短軀形의 조각이다. 어깨와 하체 전면에 표현된 천의주름은 넓고 편평한 띠 주름이며 허리에 묶은 띠매듭과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 좌우로 퍼진 띠자락은 단순하지만 사실적이며 전체적으로 아담하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보살상들을 940년경에 완성된 開泰寺址 석조삼존불입상의 협시보살상(圖 8)과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장식성이 느껴지지만 봉림사보살상들이 지닌 線的인 유려함과 사실적인 표현경향, 端雅한 조형감이 개태사상에서는 투박하고 양식화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大雅里像(圖 9)은 봉림사지 삼존불의 본존상처럼 체구가 단단하고 균형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항마촉지인을 결한 오른팔의 양감이 좋다. 특히 착의형식이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어 나팔 조각의 현실화가 진전된 장식적인 인상을 준다. 또한 봉림사지 본존상의 착의형식 가운데 승각기를 묶은 띠의 표현은 대아리 석불좌상에서도 보이며 大雅里상의 다리 위에 새겨진 斜線式의 옷주름은 봉림사지상과 흡사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계열의 조각장인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대아리조각이 발견된 고산면 대아리와 소항리일대는 여러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생각되는데 小向里에 있었던 雲門寺는 통일신라 이래 고려시대에 거쳐 번성했던 고찰이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절터에는 초석이 남아있다.⁴⁰⁾

봉림사지 삼존불과 대아리 석불좌상에서 보이는 양식은 기본적으로 통일신라말 9세기의 현실화된 조각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여기서 장식적인 요소나 지방적인 성격이 가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백제 불교조각양식이 통일신라 9세기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당시 조각계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후백제의 지배 영역이 신라의 중앙지역에서 멀지 않은 경북과 경남일대까지 확대되어 있었던 정치적 상황과 근본적으로 新羅人이었던 견훤의 배경, 후백제 북쪽 지역이었던 오늘날의 공주, 청양, 보령 일대에서 통일신라의 조각전통을 나름대로 이어오던 있던 점 등에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후자는 청양 장곡사철불좌상(圖 11), 공주 서혈사지석불좌상(圖 12), 보령 성주사지소조천불상들과 같은 9세기말 조각들이 보여주는 차분하고 단아하며 정제된 조형미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후백제 지역에서는 9세기말 양식이 자체적으로 변모하면서 지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현실적이고 지방색이 나타나는 표현은 완주군 동상면 飲水里 山城洞에서 발견된 석조약사불좌상(圖 13a, b)에서 잘 보인다.⁴¹⁾ 이 불상은 현재 전주교육대학교 박물관 뒷뜰에

40) 『全州·完州地域 文化財調査報告書』, 150쪽.

41) 『全州·完州 文化財調査報告書』, 43~44쪽.

옻겨져 있는데 藥師佛로서 약함을 든 왼손을 명치 근처까지 올리고 오른손 손등을 밖으로 하여 약함위를 덮을 듯이 가볍게 쳐들고 있는 사실적인 손의 표현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단단한 체구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새겨진 넓은 띠모양의 옷주름, 우견편단으로 착의한 대의, 섬세하게 조각된 손 등에서 봉림사지 본존상과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그리고 둥근 얼굴에 약간 돌출한 광대뼈, 미소면 입가의 표현은 경주지역 불상들과는 다른 인간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圖 13b)

이와 같이 존안에 표현된 미소는 서산마애삼존불의 왼쪽 협시인 奉寶珠菩薩입상(圖 14)과 같은 백제불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삼국기 백제의 조각들이 당시 후백제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모델이었을 뿐 아니라 백제를 부흥하고자 했던 후백제의 성격상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각경향은 후백제지역에서 어느 정도 퍼져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음수리상과 비교될 수 있는 한 예로서 공주박물관의 유성출토 석불좌상(圖 15)은 광대뼈와 입가가 돌출한 토속적인 얼굴 표현외에 넓은 띠모양의 편평한 옷주름의 표현에서도 유사성이 엿보인다.

2. 南原·智異山 일대의 불교조각

남원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지역은 통일신라 이래 불교가 융성했던 곳으로서 實相寺와 화엄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찰이 존립하였으므로 많은 불교유적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후백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각은 南原 王亭洞 大福寺 석불좌상, 新村洞 석불좌상(心鏡庵), 周生面 樂洞里 석불입상, 주생면 池塘里 석불입상, 구례 大田里 석불입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남원시 王亭洞 345번지 대복사 경내에 있는 석불좌상은⁴²⁾ 像高 약 70cm로 현재 광배의 일부를 잃었고 대좌도 중대석을 잃고 상대 양련좌와 하대 복련좌만 남아있다(圖 16a, b). 佛身은 왼쪽 어깨와 무릎이 부분적으로 깨져있는 상태이지만 균제미를 느낄 수 있으며 원래는 우수한 불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佛頭의 육계는 큼직하고 동그란 달걀형의 아름다운 尊顏에는 입가 양끝이 쪽 들어가도록 밝은 미소를 띤 생기에 넘치는 相好이다. 佛身은 작

42) 대복사 석불좌상에 대한 조사로는 金鍾太, “南原 大福庵과 佳仁寺址의 石佛”, 『考古美術』 제9권 제8호 通卷 97호, 100권 합집 下, 439~440쪽; 『文化財大觀』(전라북도, 1979), 534~535쪽; 『文化財誌』(전라북도 문화예술과, 1990), 466~467쪽 참조.

지만 아담하고 어깨는 좁고 둥글며 허리는 잘룩한 형태이다. 손은 항마촉지인을 結하고 대의는 통견식으로 입고 있다. 불상이 안치된 대좌는 단판 연화좌로 연잎은 크고 단순하며 하대는 단판복엽으로 세련미는 없다. 이 불상은 커다란 塔部材 위에 안치되어 있는데 탑의 크기로 보아서 이 절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조선시대에 저술된 『龍城誌』에 대복사의 창건을 唐 僖宗의 景福 2年(892) 癸丑初라고 하는데 이 불상의 양식과 잘 부합되고 있어 창건 당시의 불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³⁾

대복사석불좌상은 9세기말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圖 12)이나 예천 靑龍寺석불좌상(圖 10) 등과 같은 9세기 불상들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양감이 줄고 왜소해졌으며 매너리즘에 흐른 경향이 엿보이는 반면, 존안이 가름해지고 표정이 생기있게 밝아졌으면서도 현실화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처럼 대복사석불좌상이 보여주는 작고 아담한 조형감은 9세기말 불상경향의 일면을 보여주며 후백제가 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할 즈음 불상양식의 전개방향을 시사해준다.

대복사석불좌상이 보여주는 조형감은 신촌동 석불좌상에서는 도식화가 되어 퇴보된 미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新村洞 석불좌상(圖 17)은 현재 心鏡庵이라는 근래에 지어진 암자에 봉안되어 있는데 대좌의 일부를 잃은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있는 상이다.⁴⁴⁾ 이 불상은 광배와 하나의 돌에 새겨져 있고 불상에 비해 큰 편인 舟形擧身光의 光背에는 頭光과 身光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머리는 素髮이고 육계가 높으며 얼굴은 卵形으로 손상이 많아 표정은 알 수 없지만 圓滿像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옷주름은 가슴과 다리 위에 평행을 이루며 새겨져 있고 허리는 짧은 편이며, 우견편단식 착의형식을 제외하면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포함해서 모든 점에서 대복사상을 따르고 있다. 특히 우견편단한 大衣가 어깨에서 크게 反轉되어 삼각형의 주름을 이루는 圖像은 나말려초 조각에서 일반화된 표현이다. 문제는 짧은 팔과 좌족 등 신체 각부의 균형이 깨져버린 점으로 불상이 전체적으로 왜소해져 말기적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려초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는 直指寺 석조약사불좌상(圖 18)

43) 『龍城誌』 卷 4 「佛宇條」에 “寺在府北 三里 今大福庵 只有鐵佛唐僖宗景福二年 新羅眞聖女王六年 癸丑初創”으로 기록되어 있다. 『韓國邑誌總覽 朝鮮時代私選邑誌』 25, (한국인문과학원, 1989). 대복사는 원래 명칭이 大谷庵이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철종대 姜大福이란 관리가 중수하여 대복사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강대복은 철종대에 남원부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자신의 부인이 大谷庵 佛寺에 白米 30석을 시주한 공덕으로 백의 업보를 받아야 할 것을 면했다고 하여 법당을 중수하고 남원부사의 명으로 대복사로 개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44) 『全州·完州地域 文化財調査報告書』, 150쪽; 『文化財大觀』(전라북도, 1979), 286~287쪽; 『文化財誌』 445~446쪽 참조.

도 이와 같은 단구형 조각의 왜소화, 양식화 경향의 延長線上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남원 樂洞里 석불입상(圖 19)은 남원군 周生面 낙동리 산기슭의 절터에 있는 석불입상으로 대좌부분은 흙속에 묻혀 있다.⁴⁵⁾ 광배와 불상은 한 돌로 조각되었으며 광배는 커다란 주형거신광으로 화염문의 중앙에 화불이 새겨져 있고 굵은 띠로 테두리를 두른 두광과 신광에 花紋이 조각되어 있다. 불상은 마멸이 심하여 세부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동그란 얼굴에, 短軀型의 신체를 가지고 있고 둥근 어깨 위에 通肩式으로 입은 大衣의 衣紋은 넓은 U자형 띠 주름으로 새겨져 있으며 양 어깨에 꼭 붙은 듯한 두 팔은 가는 편인데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올려 外掌하였고 왼손은 허리 높이에서 무엇인가 持物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어린이의 몸과 같은 작은 체구와, 4-5등신 가량의 신체비례는 삼국시대의 경주 남산 삼화령 삼존불의 협시 보살입상이나 제원군 청풍면 읍리 寺址에서 출토한 활석제 불보살병입상(圖 21)등과 같은 삼국시대 6-7세기 아기부처의 유형을 따르고 있어 古式的인 분위기를 보인다고 하겠다. 樂洞里 석불입상과 비교될 수 있는 같은 단구형의 조각 가운데 立像으로는 해인사의 석불입상(圖 20)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상은 낙동리석불과 유사하면서도 좀더 양식화가 진행되었는데 광배와 대좌를 잃었고 불신의 하단도 깨진 상태이며 평판적인 불신 위에 음각되어 있는 옷주름은 조각기법이 쇠퇴한 일면을 보이고 있지만 동그란 童顏의 얼굴에 좁은 어깨, 短軀의 신체비례 등은 낙동리석불과 유사한 조형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낙동리석불의 소재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들판에 서있는 주생면 池塘里 석불입상(圖 23)은 넓은 어깨에 통견식으로 대의를 착의한 모습이나 통인의 수인에서 도상적으로 태안마애삼존불상의 왼쪽 여래상(圖 24)과 같은 삼국기 백제조각의 古式유형을 따르고 있으나 전체적인 조형감각이 떨어지고 양감이 줄어버린 평판적인 佛身 등에서 후삼국시대의 작품으로 비정되고 있다.

남원에서 지리산을 끼고 남쪽 求禮邑에서 동북쪽으로 8Km쯤 떨어진 光義面 대전리의 대전저수지 왼쪽 廢寺址에 있는 석불입상⁴⁶⁾은 체구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고 髻拳印을 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보이는 입상의 비로자나불이다(圖 22). 머리는 나발이며 얼굴은 손상됐지만 둥글고 부드러운 相好였다고 짐작된다. 대의는 통견으로 입었고 대의깃이 왼

45) 이 불상에 대해서는 鄭永鎬, “南原 周生面의 石佛二軀”, 『考古美術』 제4권 3호, 100권 합집 上, 368~369쪽; 『文化財大觀』(진라북도, 1979), 288~289쪽; 『文化財誌』 453~454쪽 참조.

46) 이 불상에 대해서는 崔仁善, “求禮 大田里 石造毘盧遮那佛立像에 대한 考察”, 『南佛會報』 2(光州: 南道佛敎文化硏究會, 1992), 77~85쪽의 상세한 論文을 참조할 수 있다.

쪽 어깨 위에서 반전되고 있으며 팔과 像의 측면, 뒷면에 새겨진 대의주름은 넓은 띠주름을 이루고 있다. 하체의 옷주름은 Y자형으로 갈라지는 이른바 優填王(Udayana)王式的 衣紋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단구형의 비례와 둥글고 온화한 얼굴, 삼각형으로 접혀진 대의깃의 주름표현에서 이 시기의 불상양식의 여러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권인의 손이 좌우가 뒤바뀐 점이 눈에 띈다.

3. 光州·長興 일대의 불교조각

광주는 견훤이 초기에 세력을 모았던 곳이었으며, 그 뒤에는 아들 용검을 도독으로 임명해서 관할하였던 지역으로서 나주를 지배했던 태봉(고려)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도 중요했던 곳이었으므로 당시 후백제에서 광주지역의 중요성이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⁴⁷⁾ 또한 장흥, 곡성, 광양 일대는 가지산파와 동리산파의 양대 선문파가 통일신라말에 개창되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도선과 경보가 옥룡사에 주지하며 가풍을 떨치던 곳이었다. 그러므로 이 일대에서 적지 않은 佛寺가 이루어졌을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전남지방 현존하는 많은 수의 나말려초 불상들이 이를 입증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과 장흥 용화사 석불좌상, 함평 죽림사 석불좌상, 장흥 옥룡사지 석불좌상 등을 꼽을 수 있다.

광주 證心寺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圖 25)은 1934년 전남 광산군 瑞坊面 東溪里 芝山洞 東五層石塔에서 옮겨 왔다고도 하고 전남 도청 뒷편에 있었던 大皇寺址에 있던 불상이라는 說도 있는데 後者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⁴⁸⁾ 불상은 광배와 대좌가 결실되었고 전체적으로 佛頭와 佛身의 비례는 좋은 편이며 머리는 螺髮이고 얼굴은 작는데 이목구비가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다.⁴⁹⁾ 어깨는 각이 지고 大衣를 통견식으로 입었으며 대의의 주름은 평행의 넓

47) 최완수씨는 후삼국시대 무등산 일대가 고려와 후백제의 접전지역으므로 903년과 914년 사이 이곳을 장악하여 견훤과 자용을 겨루던 왕건에 의해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崔完秀, 『名刹巡禮』, pp. 217~218.

48) 광주 관음사 주지 李四淑씨에 따르면 자신이 20세쯤 되었던 1928년경에 당시 도청 뒤에 있던 계냇계절(대황사로 추정됨)에 다니면서 법당 안에 안치된 이 불상을 보았으며 그 뒤 몇년 후 절이 폐사되고 증심사로 옮겨갔다고 한다. 『文化財圖錄』(전라남도, 1981), p. 52 참조.

49) 이 불상에 대해서는 『문화재도록』(전라남도, 1981), 52쪽: 黃壽永, “高麗時代의 鐵佛”, 『考古美術』 166·167(1985), 29쪽; 이인영, “高麗時代 鐵佛像의 考察”, 『美術史學報』 2(1989), 77쪽 참조. 황수영박사는 앞 글에서 그간 신라작품으로 논의되어오던 증심사 철불상을 고려시대 작품으로 고찰하였다.

은 띠주름으로 어깨와 소매 위에 나란히 새겨져 있고 다리 위에는 두꺼운 주름이 흠이 파인 듯 새겨져 있다. 이 상은 90cm 정도의 크지않은 조각이지만 안면에서 보이는 뛰어난 사실성과 무리없는 비례감으로 주목되며, 작은 두부에 알맞은 넓은 어깨에 늘씬한 허리, 넉넉한 좌폭 등 균형잡힌 佛身과 좌우 손이 뒤바뀐 智拳印의 표현은 불국사가 경주귀족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중창되었던 880년대 9세기말 조성된 것으로 점차 편년이 잡혀가는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圖 26)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증심사상에서는 불국사상에서 처럼 살집있는 尊顏이나 늘어진 복부 대신에 정교한 기법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같은 사실적인 尊顏이 표현되었고 양감이 현격히 줄어든 평판적인 佛身 위를 흐르는 대의주름은 두껍고 넓은 띠주름으로서 9세기 도피안사나 축서사 비로자나불좌상(圖 11)에서 보이는 평행계단식 옷주름이 다소 두껍게 변모한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여기서 현실화된 사실성에 충실하다든가 체구의 평면성, 두꺼워진 띠주름은 나말려초 조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불상이 후백제에서 조성되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증심사철불이 보여주는 현실화된 사실성은 龍華寺석불상에서도 나타난다(圖 27). 전남 長興郡 長東面 北橋里에 있는 용화사라고 하는 유래가 확실하지 않은 조그만 암자의 목조 전각에 모셔진⁵⁰⁾ 이 불상은 현재 광배 일부가 깨졌고 佛身도 하반신이 파괴되었으며 대좌도 없는 상태이지만 머리 위에 새겨진 나발이 큼직하고 尊顏에 표현된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입체감이 뛰어난 상이다. 통견으로 착의한 大衣에는 굵은 띠주름이 두껍게 새겨져 있고 왼편 어깨에는 장식술이 늘어져 있으며 가슴에는 군의를 묶은 매듭이 새겨져 있다. 오른손은 잃었으나 왼손은 크고 사실적으로 조각되었으며 손바닥을 위로 하여 배부근에 대고 있는데 지금은 차돌을 하나 올려놓고 약사여래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원래는 持物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으로 사실적이고 장식적인 요소가 발견되는 수작으로 이 상의 사실적인 相好, 장대한 규모 및 옷주름, 손, 가사장식에서 보이는 사실적이고 섬세한 조각기법은 뛰어난 조각가의 솜씨임을 알려주며 고려까지 내려오지 않는 900년을 전후한 시기로 생각될 수 있다.⁵¹⁾ 그리고 부드러운 모델링과 현실화된 존안의 표현은 함평 죽림사석불좌상을 비롯한 이 일대의

50) 『文化財圖錄』(전라남도, 1981), 392쪽.

51) 주변에는 용화사불상을 模本으로 한 조각이 더러 조성되었던 듯하다. 이 암자와 바로 인접한 高山寺에도 같은 유형의 석불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조성시기는 용화사상보다 다소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용화사석불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94년 3월 이 불상을 조사한 문명대학교수의 교시가 있었다.

여러 조각작품에서 발견되고 있다.

竹林寺 석불좌상(圖 28)은 전남 화순 운주사에서 멀지 않은 나주군 남평면 죽림리 山 1번 지 죽림사 앞뜰에 있는 석불좌상이다.⁵²⁾ 肉髻는 마멸되었고 광배와 대좌도 결실되었지만 상 자체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尊顏은 둥글고 부드럽고 온화한 圓滿像이고 大衣는 右肩偏袒式으로 입었는데 대의깃이 왼쪽 어깨 위에서 反轉되었고 가슴과 다리 위에 새겨진 옷주름은 넓은 평행주름이다. 手印은 항마촉지인을 표현하고자 한 듯한데 완전한 촉지의 자세가 아니라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상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불상들이 전남 지역에 여러 구 전하고 있는데 죽림사상보다 다소 圖式化가 진행된 예로 靈岩 靈隱寺의 광배 없는 석불좌상은 착의형식과 衣紋의 표현기법, 手印 등에서 죽림사상과 비교될 수 있는 조각이다.

IV. 後百濟地域 佛像樣式의 特徵과 彫刻史의 意義

앞에서 살펴본 세 지역의 나말려초기 조각들은 각 상의 조성시기에 先後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지역적 특성과 함께 공통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후백제의 중앙지역이었던 전주·완주 지역의 불상들은 통일신라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지방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 나름대로 장식적인 면이 강조되었으며, 남원·지리산 지역의 불상들에서는 羅末양식이 쇠퇴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광주·장흥의 남쪽지방 조각들은 부드럽고 섬세하며 사실적인 양식이 발견되는데 여기에는 이 지역* 선종의 융성에 따른 승려들의 빈번한 왕래와 단월들의 지원, 그리고 남해안지역으로 새로이 유입되었을 외래 조각적 요소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들 후백제지역 조각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통일신라 9세기 조각에서 찾아보기 힘든 밝은 미소의 온화하고 인간적인 佛顏의 표현이라든지 대좌와 옷주름 등 세부조각에서 섬세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증대된 점, 또는 손이나 얼굴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인 조각기법 등이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먼저 통일신라 9세기 조각들 가운데 靑龍寺나 鷲棲寺, 桐華寺 석불좌상들에서 보이는 단단하고 아담한 여래상 유형이 그대로 후백제의 조각계에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후백제가 백제의 구토에 세워졌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라의 전통을 계승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때문이라고 하겠는데 통일신라시대에 이 지역의 大刹을 중심

52) 이 상에 관한 자료와 정보는 국립광주박물관의 崔應天 학예연구관이 제공하여 준 것임을 밝힌다.

으로 활동하던 佛師들의 조각경향이 그대로 후백제 조각계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예로 통일신라말에 중창된 聖住寺址 소조삼천불의 일부 조상(圖 29)들이 보여주는 현실화된 사실감은 후백제조각의 일면과 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성주사는 847년경부터 朗慧禪師에 의해 중창되어 聖住山派의 本寺가 되었는데 소조삼천불은 文聖王의 願佛로서 비로자나불과 함께 조성되었다.⁵³⁾ 이 불상들은 王의 원불이니 만큼 당시의 우수한 彫刻家가 佛事에 동원되고 많은 인원이 투여되었을 것이며 이 일대 조각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⁵⁴⁾ 그러므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우며 온화한 표정의 佛顏을 지닌 성주사지출토 소조불두들과 같은 불상은 후백제지역 불교조각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졌을 것이며 서혈사지 석불좌상(圖 30)이나 장곡사 철불좌상(圖 31)과 같은 像에 영향을 주면서 후백제 지역에 널리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봉림사지 삼존불이나 완주 대아리 석불상 등 전북지역의 불상들은 두부를 결실하여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성주사불상들에서 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조형감과 사실성을 지닌 존안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동시에 새로 세워진 국가의 신선한 분위기가 조각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고 생각된다. 우선 언급될 수 있는 점은 존안의 밝은 표정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고려초기 조각에 대해 논의할 때 佛顏에 나타나는 젊고 생기있는 밝은 표정을 신생 고려의 활력이 조각에 표현된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하지만 이처럼 밝게 미소짓는 표정은 후백제 지역의 불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다소 침울하고 침잠된 통일신라말기의 조각과 달리 生氣가 느껴지는 것은 후백제라는 세력에 의해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舊百濟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한다. 현재 태봉(고려)의 조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서 단언할 수 없으나 후삼국 가운데 신라를 제외한 신생국가의 조각에서는 아마도 공통적인 현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은 普願寺址 철불좌상을 비롯하여 적조사지 철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철제불두,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圖 32) 등에 표현된 미소면 밝은 표정에서도 확인된다.⁵⁵⁾

53) “崇嚴山聖住寺事蹟”, 『佛教美術』 2(1974), 34쪽; 文明大, 『韓國彫刻史』(悅話堂, 1980), 235쪽 참조.

54) 뿐만 아니라 소조삼천불이니 만큼 후백제에 들어와서도 계속 제작하여 손상된 像을 채웠을 것이므로 현존하는 성주사지출토 소조불두 가운데 일부는 후백제 때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굴된 소조불두는 대체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文明大, “聖住寺 三千佛殿址 第一次 發掘”, 『佛教美術』 2(1974), 15~32쪽 참조.

55) 文明大, “高麗의 佛教彫刻”, 『山陰地域における日朝交流の歴史的展開』, 島根史學會研究報告 第一號(1994, 10), 183~187쪽 참조. 이 글에서 文明大교수는 廣州鐵佛과 傳普願寺址 鐵佛의 後三國時代 造成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편 과도기 조각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러 양식의 혼재현상이 후백제지역 조각에서도 엿보인다. 이 점은 배경이 다른 조각가들의 활동으로 인해 다양한 範本이 돌면서 新舊樣式이 공존하게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 예로 남원 지당리 석불입상(圖 23)의 通印을 결합 고식적인 불상 유형이라든지, 대북사 석불좌상이나 新村洞 석불좌상, 남원 낙동리 석불입상 등에서 보여지듯이 다른 시기에 비해 유난히 신체가 왜소해진 단구형의 조각이 많이 조성되었던 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것은 당시 일부 조각계의 고식적이고 복고적인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어떤 조각은 삼국시대 백제불상을 모델로 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五代조각에서도 복고적 경향이 유행하였으므로 대중관계에 적극적이던 후백제 조각에 중국의 조각요소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단구형의 불상은 고려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동안 선호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安城 이죽면의 석불좌상이나 直指寺 약사불좌상, 五臺山 月精寺 석탑을 해체수리할 때 발견된 은제불입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안성석불(圖 18)은 두부를 잃었고 손과 무릎도 보수된 것인데 조각기법은 떨어지지만 우견편단식으로 대의를 입은 좁은 어깨에서 아담한 체구가 잘 나타난다. 직지사 약사불좌상(圖 33) 역시 어린이의 체구와 같은 비례에 균제미를 잃은 작은 佛身을 지니고 있다. 월정사 은제불입상(圖 34)도 불신의 비례나 가슴이 넓게 파인 大衣 착의형식, 線刻 위주의 간략화된 조각기법 등에서 왕궁리석탑 출토의 금동불입상의 양식을 모델로 하되 좀더 퇴보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불상의 顔面이나 착의 표현 등에서 사실주의적이고 현실화된 양식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대북사 석불좌상을 비롯하여 증심사 철불좌상, 龍華寺 석불상, 竹林寺 석불좌상 등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드럽게 미소짓는 존안의 표정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연상시킨다. 이와 같은 사실적인 경향은 통일신라말부터 계속 추구되어 온 것이며 중국에서 당말부터 현실화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 시대양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지방적 요소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완주 음수리 석불좌상의 안면표현에서 뿐 아니라 봉림사지 삼존불의 광배나 대좌의 조각에서도 투박하고 균제미를 잃은 지방적인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남원지역 조각에서 눈에 띄게 퇴화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점도 이전의 羅末양식이 전해 내려오면서 자체적으로 양식화가 진행되어 매너리즘에 흐르게 된 것

56) 이 문제에 관해서는 崔聖銀, “羅末麗初 佛教彫刻의 對中關係에 대한 考察”, 105~130쪽 참조.

57) 이 불상에 대해서는 崔聖銀, 앞 글, 124쪽과 註 36 참조.

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살펴본 후백제의 조각양식과 조각경향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된 뒤에 통일신라조각과 함께 고려조각으로 흡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조각 가운데에서 곡선적이고 사실적이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델링을 보여주는 작품들의 양식적 연원이 부분적으로는 후백제 시대에 발전된 조각경향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남원 만복사지 석불입상, 광주 원효사 소조불상들과 같은 고려 중엽의 불상들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생각된다.

특히 만복사지 석불입상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年)에 만복사가 고려 文宗代(r. 1046~1083) 창건된 사찰로 기록되어 있어 이 시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측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世宗實錄』(1454年)에는 창건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⁵⁸⁾,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려문종 이전의 양식으로 생각되는 금동여래입상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석불입상이 서 있는 뒷편의 講堂址 東便遺構에서 가장 시기가 이른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기단에서는 안압지와 같은 통일신라시대 유적지어나 볼 수 있는 雙鳥紋 암막새가 출토되었고 경주지역의 유적에서는 볼 수 없고 고구려계의 영향이 느껴지는 四葉蓮華紋 수막새가 발견된 점에서 현재의 강당지 보다 연대가 이른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⁵⁹⁾ 석불입상의 조성시기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후백제지역의 조각 중에서 고려 왕건이 후백제와의 최후 전투였던 一利天 전투에서 후백제를 무찌른 뒤 連山에 세운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圖 36)과 양식적으로 꼭 일치하는 예는 없었다. 그러나 개태사삼존불의 頭部가 큰 4~5等身 정도의 신체비례와 미소면 존안의 표정, 衣紋과 치레에 보이는 장식적인 세부조각 등은 후백제지역의 조각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특히 협시보살상의 얼굴(圖 38)을 성주사지 塑造佛頭(圖 39)와 비교해 보면, 깊게 활처럼 파인 눈썹과 짧은 코, 좁게 파인 인중, 미소면 입가의 표현 등에서 서로 흡사하다.

전황은 後三國이 통일된 이듬 해 연산의 어느 佛寺에서 病死하였고 전후 사정으로 보아서 연산은 끝까지 후백제의 영향력이 미쳤던 지역이었다고 생각되므로 개태사삼존불상은 후백제라는 지역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 像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태사 창건은 고려의 국가적인 대규모 佛事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조각 장인들 외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변의 많

58) 秦弘燮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 三國時代 ~ 統一新羅時代 -』(一志社, 1987), 2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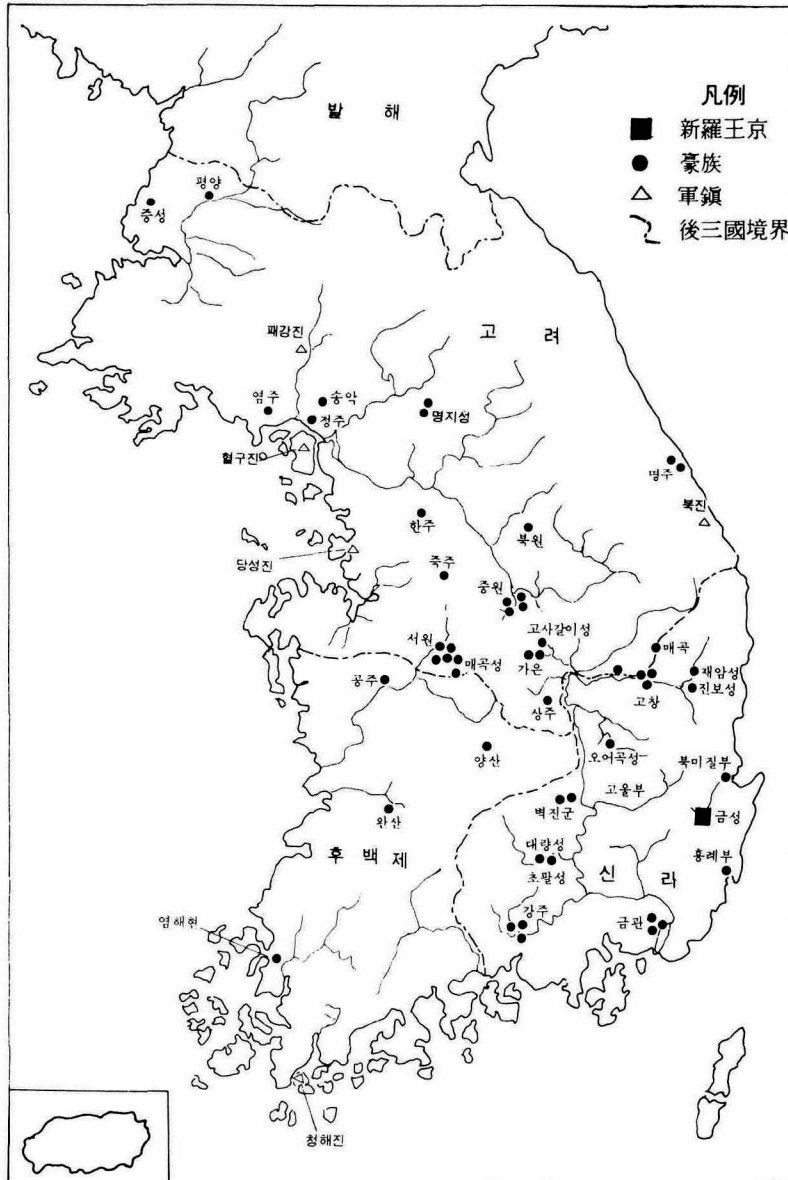
59) 『萬福寺發掘調査報告書』(전라북도·전북대학교 박물관, 1986), 45~47쪽, 100~101쪽, 114~115쪽 참조.

은 장인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삼존불에서 보이는 장중하고 괴체적인 조각양식은 예천 東本洞 석불입상(圖 37)과 중원 院坪里 석불입상, 灌燭寺 석조보살입상 등과 같은 慶北 북부와 忠淸지방의 여러 조각으로 이어지고 있어 고려시대에 이 일대에서 널리 확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후백제지역의 조각에서 발견되는 여러가지 조각적 요소는 이제껏 나말려초 조각으로 몽땅 그려 인식되어 오던 많은 불상들이 지역에 따라 다른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고 신라지역 밖의 조각들이 기본적으로는 통일신라조각에서 출발하였지만 나름대로 변모하였던 사실을 알려준다.

V. 맺는말

지금까지 후백제지역의 조각에 대해 전북과 전남지역에 현존하는 몇몇 불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불상들은 대체로 892년에서 936년 후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45년간 동안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조각들로서 나말려초 조각의 특징과 함께 후백제 조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각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까지 막연하게 나말려초라고 통칭되어 오던 일부 조각들이 후백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리될 수 있었다. 현재 후백제지역에 남아있는 불상들은 그 당시 후백제의 정치, 경제적인 배경에서 꽃피었던 화려한 문화를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석불과 소형 금동불들 뿐이어서 후백제 조각의 핵심을 깊이있게 고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후백제지역 조각이 통일신라조각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신생국가의 활기, 舊百濟 지역의 조각적 특징이 표현되는 독특한 양식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후백제지역의 조각을 다시 말하자면, 동 시대의 통일신라지역 조각들에 비해 사실적인 조각기법이 뛰어나고 부드럽고 인간적인 조형감이 돋보이는 양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조각적 특성은 후백제가 고려에 병합된 이후에 고려조각에 흡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1〉 지도 : 나말려초 후삼국의 세력분포
 (崔根泳, 『統一新羅時代の 支配勢力研究』, 1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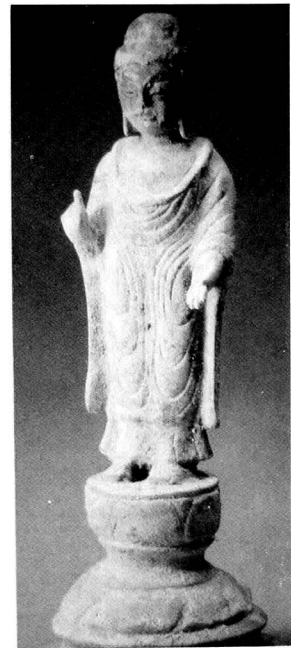
〈도 2〉 南固寺금동불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7cm



〈도 3〉 금동불입상, 김제 옥산리출토,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7.2cm



〈도 4〉 금동불입상, 김제 옥산리출토,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10.2cm



〈도 5〉 금동불입상, 익산 왕궁리석탑출토



<도 6> 海鼎寺址 석불두, 정읍 고부면 용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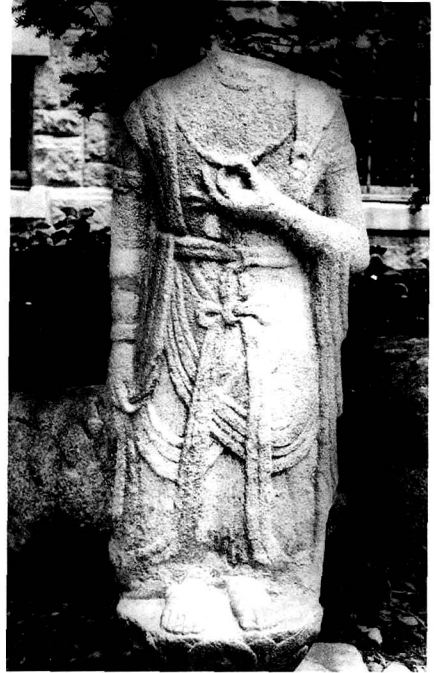
<도 7a> 鳳林寺址삼존불의 본존상



<도 7b> 鳳林寺址 석조삼존불상, 완주 고산면 삼기리출토, 전북대학교 박물관



〈도 7c〉 鳳林寺址삼존불 좌협시보살입상



〈도 7d〉 鳳林寺址삼존불 우협시보살입상



〈도 7e〉 鳳林寺址삼존불의 본존상 광배뒷면 僧形尊像



〈도 8〉 開泰寺석조삼존불의 좌협시보살입상, 고려시대 94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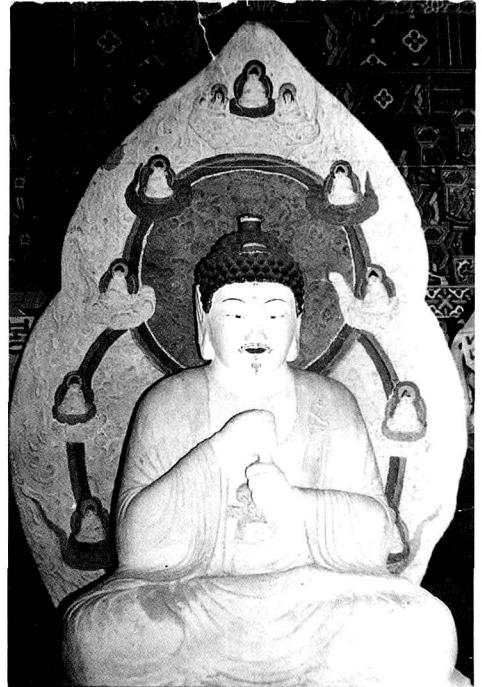
〈도 9〉 석불좌상, 고산면 대아리출토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 像高 67cm



〈도 10〉 靑龍寺석불좌상, 경북 예천, 통일신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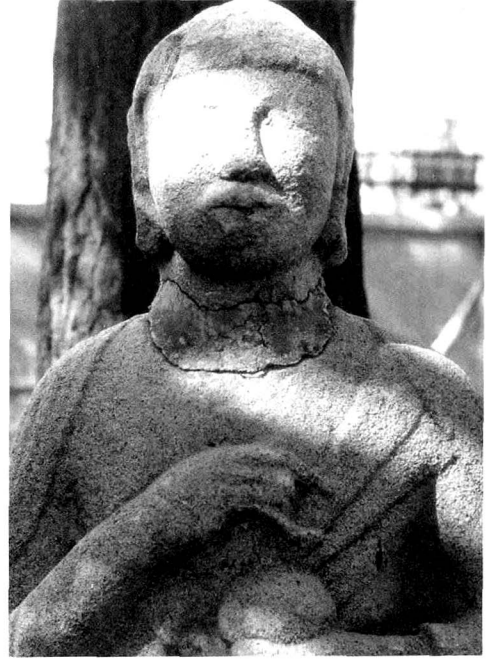
〈도 11〉 鷲樓寺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북 봉화, 통일신라시대 863년 경



〈도 12〉 桐華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시대 867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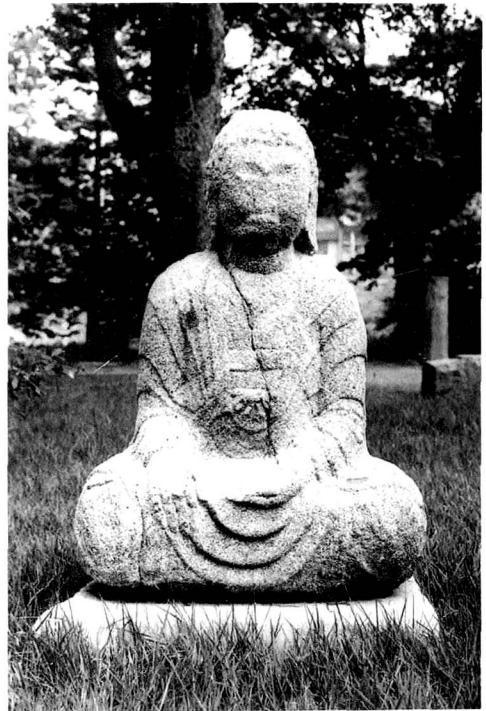
〈도 13a〉 석조약사불좌상, 완주 음수리출토, 전주교육대학박물관, 像高 91cm



〈도 13b〉 석조약사불좌상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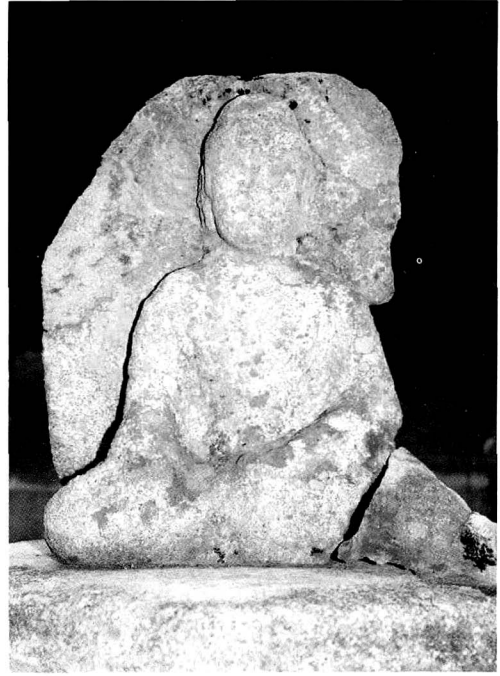
〈도 14〉 서산마애삼존불 협시보살입상, 삼국시대 백제



〈도 15〉 석불좌상, 유성출토, 국립공주박물관



〈도 16a〉 大福寺석불좌상, 남원시 왕정동, 像高 70cm



〈도 16b〉 大福寺석불좌상의 세부



〈도 17〉 心鏡庵석불좌상, 남원 신촌동, 像高 117cm



〈도 18〉 直指寺석조약사불좌상, 경북 김천, 고려시대



〈도 19〉 석불입상, 남원 주생면 낙동리, 像高 133cm



〈도 20〉 海印寺석불입상, 경남 합천



〈도 21〉 활석제불보살병입상, 제원군 청풍면 읍리출토, 삼국시대 백제, 국립청주박물관



〈도 22〉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구례 광의면 대전리, 像高 190cm



〈도 23〉 석불입상, 남원 주생면 지당리, 363cm



〈도 24〉 태안마애삼존상의 석불입상, 충남 태안, 삼국시대 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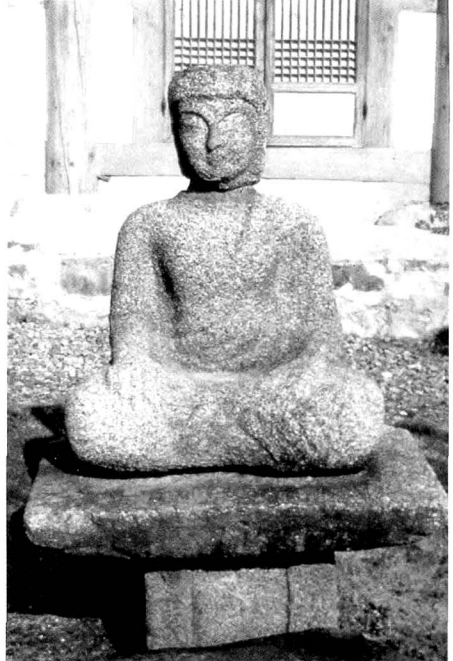
〈도 25〉 證心寺철조비로자나불좌상, 像高 90cm



〈도 26〉 佛國寺금동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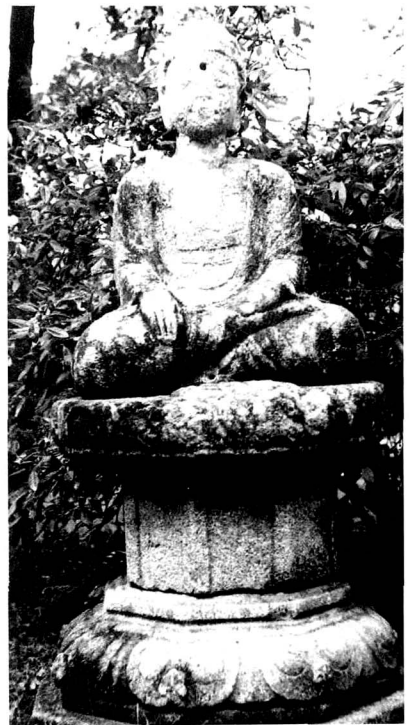
〈도 27〉 龍華寺석불좌상, 장흥 장동면 北橋里, 像高 250cm



〈도 28〉 竹林寺석불좌상, 나주 함평면 죽림리



〈도 29〉 聖住寺址 塑造佛頭, 국립공주박물관



〈도 30〉 西穴寺址석불좌상, 국립공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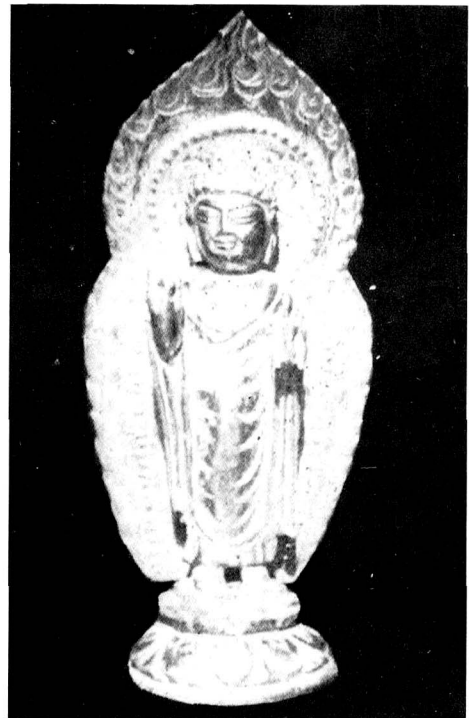
〈도 31〉 長谷寺철불좌상, 충남 청양



〈도 32〉 寒松寺址석조보살좌상, 국립중앙박물관



〈도 33〉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기도 안성, 고려시대



〈도 34〉 月精寺은제불입상, 강원 평창도, 고려시대



〈도 35〉 萬福寺址석불입상, 전북 남원, 고려시대



〈도 37〉 석불입상, 경북 예천 동분동, 고려시대



〈도 36〉 開泰寺삼존불입상, 충남 연산, 고려시대 940년경



〈도 38〉 개태사삼존불 좌협보살입상 세부



〈도 39〉 聖住寺址소조불두, 동국대학교박물관